



미리보기



◎ 고려와 이웃나라와의 전쟁

고려시대는 거란과 몽고와의 긴 싸움이 있던 시기입니다. 또 북방에서는 여진과 홍건적의 침략이 있었고, 남방에서는 왜구의 침략이 계속 되었습니다. 거란군이 침입했을 때 서희와 강감찬 장군이 크게 물리쳤으며, 이어 1107년에는 윤관 장군이 여진을 정벌하고 9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1231년 침입을 시작한 몽고와는 무려 40년간이나 긴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총 7차례의 몽고와의 전쟁을 고려는 슬기롭게 방어했지만, 무인정권 아래의 고려 조정은 몽고와 화친하기를 더 원했습니다. 이후 고려 말에는 두 차례에 걸친 홍건적과 왜구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위기에 처하였으나, 최영장군의 뛰어난 지휘와 최무선의 화약 제조 성공으로 인해 화약병기를 사용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고려의 인쇄문화, 팔만대장경

고려 고종 때 몽고군이 대거 침입해 왔을 때 대구 부인사에 보관된 초조대장경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외침을 물리치기 위해 다시 대장경을 간행하는 국가적 사업이 시작되어 16년 걸려 1218년 <재조대장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 왕건의 고민거리, 호족

후삼국을 통일한 사람은 고려태조 왕건입니다. 그런데 왕건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힘이 되어 준 호족들이었습니다. 호족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세력을 막강하게 행사하였는데, 까닭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함께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건은 호족들을 어떻게 다스리면서 왕권을 강화시킬까 고민이었습니다. 이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결혼정책'이었습니다. 호족들의 딸과 결혼하면 서로 친척이 되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 고려청자



청자는 무신정권으로 들어서기 직전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고려 귀족문화가 만들어낸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발, 접시, 잔, 병, 향아리 등 생활에 쓰이는 그릇부터 불교용품, 제사용품, 화장용품, 문방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심지어는 청자로 기와를 구워 이기도 합니다. 청자는 통일신라 말기부터 구워지기 시작하지만 완성을 이룬 것은 고려시대이며, 깨끗한 순청자에서 상감청자까지 다양하고 아름다운 고려만의 멋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 세계로 통하는 길, 벽란도

고려는 외국과 무역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는 물론 아라비아까지 상인들이 다녀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리아란 이름을 세계에 알린 것도 바로 '고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외국상인들이 배를 타고 황해를 건너와 예성강 입구에 있는 벽란도에 닻을 내립니다. 벽란도는 고려 수도 개경과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벽란도는 수도 개경으로 가는 관문이자 국제 무역항이었죠. 벽란도에는 벽란정이란 건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외국상인들이 드나들며 머무는 건물이었습니. 벽란도는 외국문물이 들어오는 1번지이자 고려 문화가 전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 고려 제일의 수출품: 인삼, 종이, 먹

인삼은 약효가 좋기로 소문나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고려 인삼은 고려시대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개경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자리합니다.

고려 종이는 질기고 빛깔이 흰데다 윤기가 흘러 최상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송나라 사람들은 좋은 종이를 보면 고려 종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인쇄문화가 꽃을 피운 것도 다 좋은 종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도 좋기로 소문이 나서 주요 수출품에 끼었습니다. 먹은 종이와 함께 고려 수출품이며, 또한 인쇄문화를 발전시킨 장본이기도 합니다.